

맥체인 성경읽기 10.25

열왕기하 6장

1-2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동조차 어려움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 각각 통나무를 구해다 더 넓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게 하여라.”

3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좋다.”

4-5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머리가 떨어져 강 속에 빠져 버렸다.

그가 외쳤다.

“큰일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 온 도끼입니다!”

6 거룩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

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리를 일러 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지점으로 던지자, 도끼머리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 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8 한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9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메
시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10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거룩한 사람
이 경고한 곳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
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1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구인

지 말하여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12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짓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에서 속삭이는 귓속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13 왕이 말했다. “가서 그 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14 왕이 말과 전차를 보냈는데, 엄청난 전투 병력이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15 이른 아침에 거룩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16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17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놀랍게도,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
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18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

게 하셨습니다.

19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20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기가 어딘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들이 둘러보니,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무리를 쳐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22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

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23 그래서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들을 실컷 먹고 마시게 한 뒤에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고향에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는 아람의 기습부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24-25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정비하고 사마리아 포위에 나섰다. 그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다. 음식 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나귀 머리 하나에 팔십 세겔, 야채 한 대접에 오 세겔이었다!

26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쳤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27 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느냐? 곡물 창고 일을 돕겠느냐, 아니면 농장 일을 돕겠느냐?”

28-29 그러면서 왕이 말했다. “네 사연이나 들어 보자.”

여인이 말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저녁식사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네 차례다. 저녁식사로 먹게 네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30-31 왕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맨살 위에 거친 삼베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왕이 큰소리로 말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빈다.”

32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왕이 이미 사형 집행인을 보냈으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방금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 니까?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면 문을 닫아 잠그십시오. 그를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저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33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것이다! 다음
은 또 무엇이나?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
하다!”

디모데전서 3장

교회 지도자의 자격

1-7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
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불임성
있고, 남을 따듯하게 맞아 주는 사람이어야 합
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

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

**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8-13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
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을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
을 이용해 이 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
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
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14-16 나는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요새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되므로

온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다니엘 10장

티그리스 강 가에서 본 환상

1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삼년에,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한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진상을 알려 주는 메시지였다. 그는 계시를 받아 그 메시지의 뜻을 깨달았다.

2-3 “그때에, 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 세 주간 애곡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는 간단한 음식만 먹었고, 조미료나 고기나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았다. 세 주가 지나기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4-6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독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위를 올려다 보고 깜짝 놀랐다.

허리에 순금 허리띠를 매고 모시옷을 입은 어떤 이가 거기에 있었다! 그의 몸은 보석 조각처럼 단단하고 반짝였으며, 얼굴은 빛났고 눈은 햇불처럼 이글거렸다. 팔과 발은 청동처럼 광채가 났고, 깊이 울리는 음성은 거대한 합창소리 같았다.

7-8 그 광경을 나 다니엘 혼자서만 보았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쳐 숨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 홀로 남겨진 나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얼굴에 핏기도 가셨다.

9-10 그때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가 말하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잃은 채 얼굴을 땅 바닥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내 손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일으켰다.

11 그가 말했다. ‘뛰어난 자 다니엘아, 귀 기울여 나의 메시지를 들어라. 일어서라. 곧게 서라. 네게 이 소식을 전해 주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다.

12-14 ‘다니엘아, 진정하여라.’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네 자신을 낮춘 순간부터,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왔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내 길을 가로막아 시간이 세 주나 지체되었지만, 가장 높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서서 나를 도와 주었다. 나는 그를 페르시아 왕국의 왕과 함께 있게 놔두고 떠나왔다. 마침내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네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온 것이다. 이 환상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다.’

15-17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땅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것이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내 입이 열리고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주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사지가 굳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데, 미천한 종인 제가 어떻게 감히 주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8-19 그러자 사람 모습의 그가 다시 한번 나를 어루만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말했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다 잘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가 말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

랐다. 내가 말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0-21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왜 네게 왔는
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
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그를 물리치면 그리
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전
에 먼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말해
주려고 한다. 그 싸움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는 너희 천사장 미가엘 밖에 없다.’”

시편 119:1-24

1-8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 주신 길을

한결 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겉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하나님, 주께서는 바른 삶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께서 정해 주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갔더라면,

주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여

내 삶을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을.

진심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니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9-16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 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17-24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며

주님의 길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니

분명한 지침을 내려 주소서.

내 영혼은 허기지고 굶주렸습니다!

영양가 높은 주님의 계명들을 갈망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들이 나를 놀리거나

욕보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실천합니다.

못된 이웃들이 나를 몹시 헐뜯어도

나는 주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생 교훈이 내게 기쁨이 되니

내가 좋은 이웃의 말처럼 귀담아듣습니다!